조운동네 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5년 12월 20호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우리동네 기억지도 8

조운동네 2025 10

4주년, 우리의 기록 12

우리는 즐겁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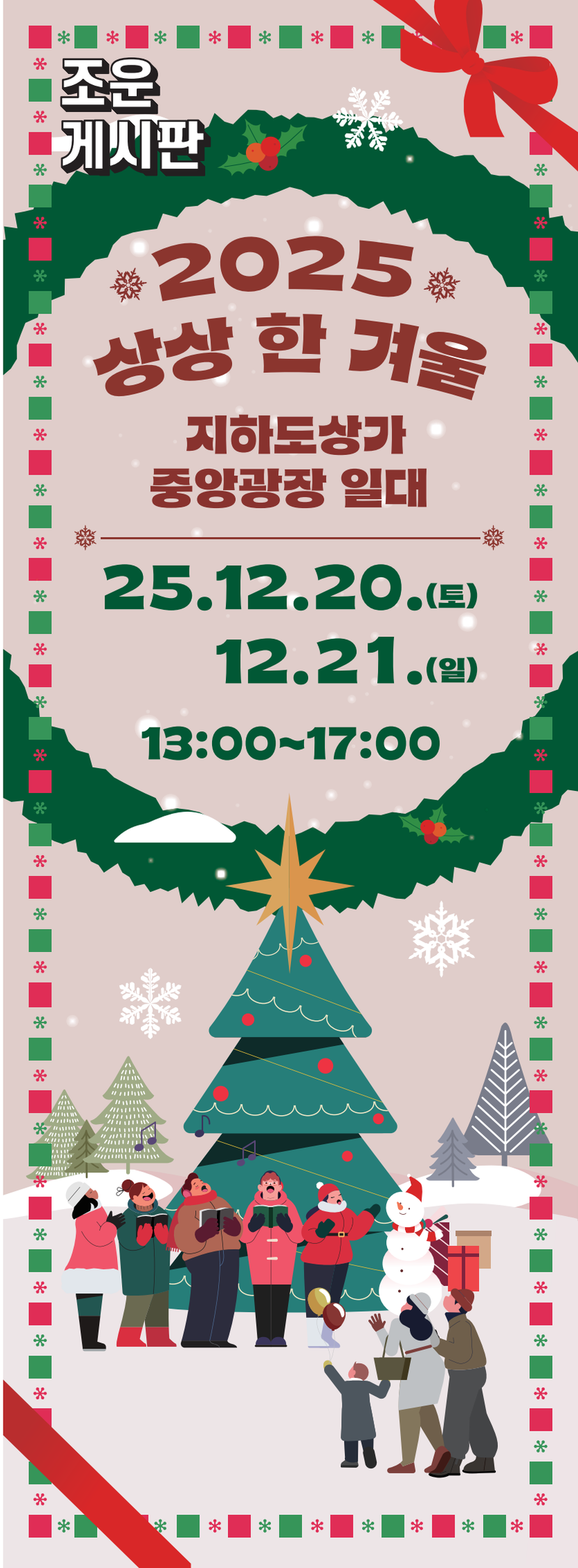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5년 12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그래도 조운

3rd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FESTA

조운미식회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춘천의 맛과 원도심이 만나다!

10월의 춘천시청 광장은 근사한 '미식'의 향기로 가득했다. 이날 열린 "2025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 조운미식회"는 평범한 먹거리 장터가 아니었다. 조운동의 진한 풍미를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잇는, 말그대로 '코스 요리'로 차려낸 거대한 미식 연회였다.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간직한 '열두달평양손만두'의 깊은 맛. 지하도상가의 든든한 친구 '조선땡초우동'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 '봄내베이킹'의 화려한 케이크와 달콤한 디저트 피날레. 그날의 주역들을 다시 만났다.



어머니의 부엌을 기억하는 일, 그리움을 빚다

열두달평양손만두_김예경 대표

만두 하나에 '평양'과 '어머니'가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 고향이 이북(평양, 순천)이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가 빚어주시던 만두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저도 나이가 들어서야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춘천은 막국수나 강원도식 만두가 익숙하잖아요. 처음엔 우리 집 만두가 낯설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참 정성스러운 음식이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만두를 파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함께 내어놓는 마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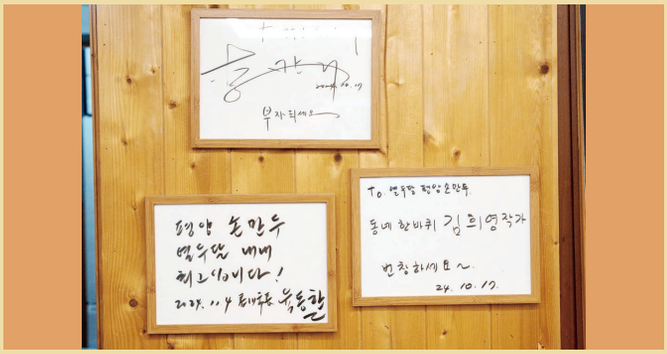
메뉴판의 '씬국수'라는 이름이 독특해요. 매울 '신(辛)'인가요?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씻어서 나온 국수'라서 '씬국수'예요(웃음). 친정엄마가 홍두깨로 밀어 만든 칼국수를 찬물에 씻어서 들기름에 무쳐주셨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엄마가 "씻었으니까 씬국수지!" 하셨죠. 손님들이 어려워해서 바꿀까 고민도 했지만, 엄마의 귀여운 작명 센스를 그대로 남기고 싶어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만두는 항상 당일에 빚으시나요?

저희는 미리 쪄서 얼려두지 않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끓여내거든요. 점심시간엔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리지 않은 생만두에서만 나오는 식감과 퀄리티가 있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좁은 골목에서 오래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동네 한 바퀴)에 나가고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왔을 때도, 저는 그저 한 분 한 분이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번 조운미식회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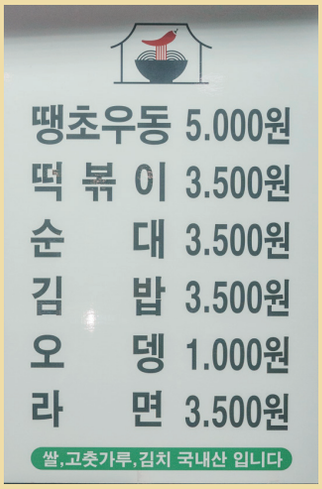
조선땡초우동_안광남 대표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신발 가게를 운영하시다 요식업에 도전하셨다고요.

네, 신발 장사만 18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죠. 작년 2월, 아내와 함께 큰맘 먹고 우동집을 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지금은 신발 가게와 우동집을 오가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동 가격이 5,000원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요.

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죠. 김밥 재료부터 안 오른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곳 지하도상가는 주머니 가벼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섣불리 가격을 올리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아내는 "남는 게 있어야 장사지"라며 걱정하지만, 저는 "일단 저렴하게, 대신 많이 팔아보자"는 쪽이에요. 찾아주시는 단골분들 생각하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진 이 가격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 조운미식회는 사장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준비 시간이 촉박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떡볶이, 순대, 김밥 같은 분식을 내놓고 사람들 반응을 직접 보는 게 꽤 재미있더라고요. 평소 지하도상가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조용한 편인데, 미식회 덕분에 가게가 알려지고 저녁에 다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걸 보며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활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인테리어도, 특별한 기교도 없지만 우리 가게엔 '정'이 있어요. 부담 없이 오셔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케이크 위에 피어난 꽃, 춘천의 봄을 그리다

봄내베이킹_임정빈 대표

'봄내'라는 이름에서 춘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2002년부터 베이킹을 시작해 20년 넘게 빵을 구워왔어요. '봄내'는 춘천의 순우리말이잖아요. 제 케이크가 춘천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해요. 고객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구상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라워 케이크를 만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요?

(잠시 침묵)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하늘나라로 간 아이를 위한 케이크였어요. 아이의 첫돌이자 마지막 인사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하러 오신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작업했죠. 그때 저도 모르게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던 '하얀 국화'를 앙금으로 짜고 있더라고요. 그 케이크로 아이를 보내드리고, 나중에 그 어머니가 건강한 아이를 다시 얻어 찾아오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케이크가 기쁨뿐 아니라 슬픔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이번 조운미식회에 80개의 케이크를 출품하셨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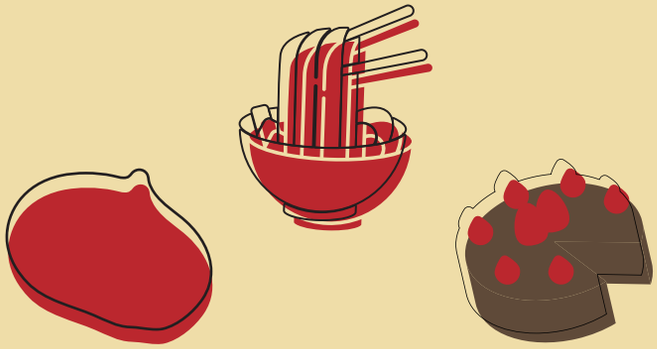
혼자서 80개를 만드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밤을 새우며 정말 '들고, 날고, 뛰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80개의 케이크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작품처럼 서는 장관을 꼭 보고 싶었어요. 현장에서 손님들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며 감동하실 때, 그간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만큼, 맛과 아름다움은 국경을 넘습니다. 춘천의 골목에서 피어난 이 꽃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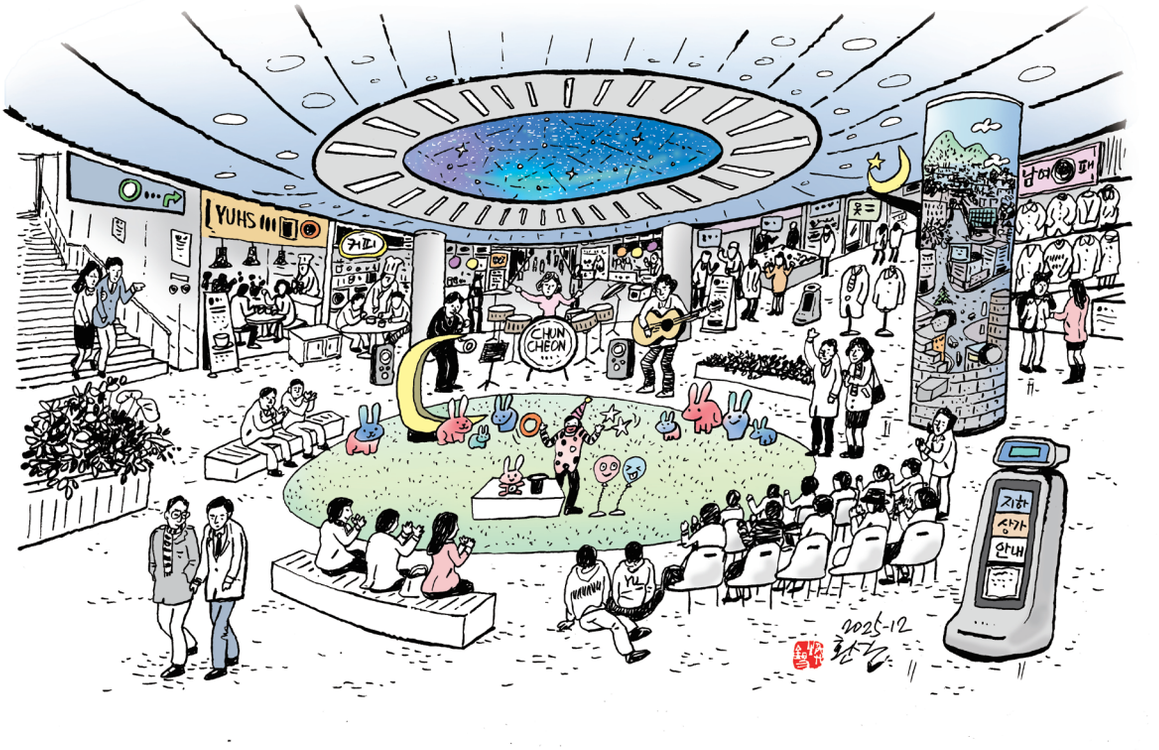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빚는 만두, 주머니 가벼운 이웃을 위해 가격을 지키는 우동,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까지. '조운미식회'는 이 골목을 지키는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언제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특별한 축하가 필요할 때, 조운동네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그곳엔 여전히 맛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으니.



우리동네 기억지도

춘천명동지하도상가

오래된 길 위에 다시 피어나는 이야기



도시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건물은 새로 올라가고, 상권은 이동하며, 익숙했던 풍경은 어느 순간 기억 속에만 남는다. 그러나 그 변화의 물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공간이 있다. 춘천 명동 지하도상가가 그렇다.

1999년 개장한 이 지하도상가는 도내 최대의 지하도상가이며, 한때 춘천 도심 상권의 핵심이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바쁘게 오가던 장소였다. 또한 춘천시민의 휴식 및 문화, 쇼핑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온도와 조명 아래, 의류점과 분식집, 수선집 등 일상의 가게들이 줄지어 자리했다. "명동으로 나가자"는 한마디에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쇼핑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무게 중심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명동 지하도상가는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공실이 늘고, 오래된 간판이 벽면에 남아 있는 모습은 도시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한 단면처럼 보였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객도, 유행을 좇는 소비자도 아니었다. 대신 오랜 단골, 가까운 주민, 혹은 지나가다 옛 감정을 떠올린 누군가였다.

그러나 최근, 이 지하도상가는 다시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다. 몇몇 빈 점포에는 청년 창업가와 공방, 수제 디자이너 숍, 전시 공간이 들어섰다. 사람들은 이곳을 다시 "예전 그대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찾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공간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사업에 공모·지원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를 걷다 보면 느려진 시간과 빠른 시대의 대비가 묘한 정서를 만든다. 오래된 타일과 네온 간판, 한 세대의 기억이 묻은 상점들. 그 사이로 새로운 가게의 간판과 정리된 조명이 켜진다. 이곳은 과거를 지우지 않은 채 미래를 붙잡으려는 도시의 실험 무대이자, 그 자체로 서사와 기억을 담은 문화적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춘천 명동 지하도상가는 오늘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 변화는 화려하지도 급하지도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지하도상가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글_도서출판 산책 원미경

조운동네 2025



틈새콘서트 시즌4 6/7~6/28

전국 단위의 버스커가 참여한 '틈새콘서트 시즌4'가 진행되었다. 시즌 중 처음으로 명동길에서 무대를 꾸몄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 오후 시간에 운영되었다.



2025 스트리트리포터 7/10~11/12

춘천시 도시재생 사업권역을 취재하고 책으로 엮어내는 시민 참여형 기록 프로젝트 '2025 스트리트리포터'가 진행되었다. 도시의 재생이 생생히 담긴 『SIDE B, 춘천』을 출간하였다.



상상 아카데미 7/19~8/9

상상력으로 지하도상가에 변화를 더하다. 청소년 주도형 지역 공간 개선 프로젝트 '상상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완성된 작품들을 통해 지하도상가 유휴 공간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5 상상 한 여름 8/16~8/17

춘천 지하도상가 문화 행사 '2025 상상 한 여름'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시민 참여 마켓, 한정판 굿즈가 제공되는 게임 코너 등 여름휴가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틈새콘서트 시즌5 9/27~11/29

170팀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틈새콘서트 시즌5'가 진행되었다. 1회차부터 7회차까지의 공연 중 상위 5팀을 선정해 마지막 회차에 재공연하는 일종의 경연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 10/24~10/25

조운미식회, 로컬 팝업스토어, 문화예술 공연, 플리마켓, 도시재생관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풍요롭게 구성한 '제3회 춘천 도시재생 페스타'가 진행되었다.

2025 상상 한 겨울 12/20~12/21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2025 상상 한 겨울'이 진행될 예정이다. 캐럴, 재즈와 같이 겨울과 잘 어울리는 무대, 수공예 체험 부스,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4주년 우리의 기록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2~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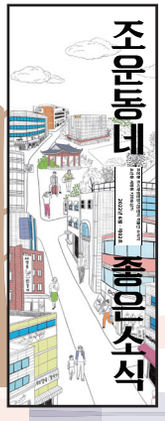
2022

소식지 창간. 앞표지는 권역의 모습을, 뒤표지는 주차·행사·쉼터 같은 권역의 편의성 정보를 담았다. 주민 인터뷰를 비롯해 한 줄 상가 소식, 도시재생 선진지 사례, 센터 Q&A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2022년 4월 제01호



2022년 6월 제02호



2022년 8월 제03호



2022년 10월 제04호



2022년 12월 제05호



2023년 4월 제06호



2023년 6월 제07호



2023년 8월 제08호



2023년 10월 제09호



2023년 12월 제10호



2023

앞·뒤표지에 날개를 달았다.
4면을 전부 펼치면 권역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24

호별 키컬러를 설정했다. 원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표지와 통통 튀는 분위기의 내지를 디자인했다. 권역 맛집 소개 '조운미식회', 독자 참여 퀴즈 이벤트 '좋은 사람 모여라' 등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다.

2025

파스텔톤의 키컬러, 권역 역사 이야기 '조운동네 기억지도', 대관 시설 이용자 소식 '조운동네 이런일이' 등을 새로이 기획했다.

2024년 4월 제11호



2024년 6월 제12호



2025년 4월 제16호



2025년 6월 제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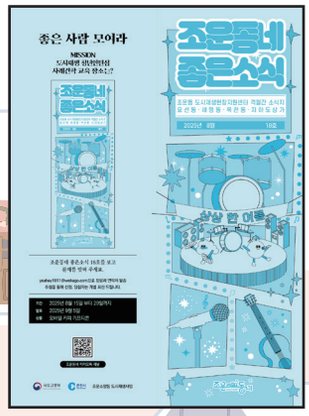
2024년 8월 제13호



2024년 10월 제14호



2025년 8월 제18호



2025년 10월 제19호



2024년 12월 제15호





우리는 즐겁게



틈새콘서트 시즌5

이예은 코디네이터

9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 '틈새콘서트 시즌5', 가을 향기를 듬뿍 눌러 담았습니다. 보컬, 댄스, 악기 연주, 마술 등 그 어느 시즌보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채워졌는데요. 시즌4 때와 같이 전부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공연팀들이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일종의 경연 형식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현장 호응도와 SNS 좋아요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선정된 상위 5팀이 마지막 회차에 다시 참여했어요.

2023년 여름에 시작된 틈새콘서트가 어느덧 5번째 시리즈에 다다랐습니다. 조운동네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한 틈새 버스킹!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2025 상상 한 겨울

올겨울 크리스마스에도 상상 한 겨울과 함께해요! '2025 상상 한 겨울'이 12월 20일, 21일 지하도상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캐럴·재즈·클래식 등 설레는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요. 수공예 체험과 각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활용한 포토존과 조운동네의 2025년을 담은 전시는 28일까지 운영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50-4937 편지영 코디네이터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 12/15~12/28 2025 상상 한 겨울
- 1/2~1/15 제1회 강원디카시조 전시회
- 1/16~1/31 라이프 스케치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조운동!

5개월 동안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며 '도시는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 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회의록 한 줄, 주민 인터뷰 한 마디에도 지역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맡은 역할을 고민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현장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도시의 방향을 만든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센터장님, 사무장님, 코디님들, 그리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배운 책임감과 시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원 인턴

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12월 20일, 21일 지하도상가에서 진행되는 연말 문화 행사 이름은?



조운동네 좋은소식 20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5년 12월 15일 부터 28일까지
발표	2026년 1월 2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